

서른살 5·18...광주 여전히 외롭다

서울·부산·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 기념행사 줄줄이 취소·축소

5·18 민중항쟁 30주년을 맞아 전국 주요 도시에서 계획된 5·18 기념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돼 '5월 정신'의 전국화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열린 30주년 행사가 현지 주민들의 참여 저조로 5·18 관계자들 만의 행사로 전락하는 등 전국화 사업에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오전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 대전지역 정신계승대회'가 열린 대전의 광장은 행사 직전까지 때아닌 목탁소리로 가득했다. 한 불교단체의 주최로 열린 '쌀 모으기' 행사 때문이었다.

행사는 불교단체의 양해를 구해 대회가 열릴 수 있었지만 관계자들만 150석 규모의 좌석을 채웠을 뿐, 일반 시민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같은 시간 무대 바로 옆에 마련된 '기념사진전' 부스에 20대 여성 한 명이 들어섰지만, 곧바로 남자친구의 손에 이끌려 자리를 떠났다. 심지어 이 남성은 전시된 5·18 사진들을 향해 "이런 것, 보면 안돼. 경찰이 잡아가"라고 통명스럽게 말을 내뱉었다.

대학생 최모(24)씨는 "광주에서 발생한 5·18에 대해선 알고 있지만, 올해가 30주년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여성인력개발센터. 이곳에선 오후 4시까지 '광주민중항쟁 기념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센터 입구의 철제 셔터는 굳게 내려져 있었다.



썰렁한 대전 5·18 사진전

관계자들만이 자리를 채운 상황에서 치러졌다.

15일 대전역 광장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 대전지역 정신계승대회'와 '기념사진전', 시민들의 관심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행사는 5·18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안산행사위 측은 이날 토론회가 6·2 지방선거로 인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토론 참가자 대부분이 "행사가 선거 관련 일정과 맞물려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안산시 성부동과 성포동에서 열릴 예정이던 '5월의 노래 주민평화 합창단 노래자랑'도 모두 연기됐다.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예정된 30주년 기념행사도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추모 헌화·추모 분향' 행사는 서울시의 '서울광장 상설무대 사용허가 내용 변경 통보'로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시는 행사를 사흘 앞둔 지난 13일야 "국가적 행사가 아닌 행사로 상설무대가 설치될 경우 설치목적 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공문을 통해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은 지난 7일부터 중구 영주동 민주공원 내에 '5·18 30주년 기념 그림전시회' 부스를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5월 정신'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부산 행사위 측에서 추진 중인 '5·18 기념식'(18일)과 '5·18 음악회'(21일) 만으로는 5·18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안산=김호기자 kimho@

5·18 통일·여성 영화제 '삐걱'

통일영화제 관객 고작 1~2명
옛 도청 '여성 영화제'는 취소
홍보부족·단체들 손발 안 맞아

시민주도형 추모행사로 기획한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이하 30주년 행사위원회)가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일부 행사가 취소·축소되고 있다.

30주년 행사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2층 민원실에서 북한영화를 소개하는 '통일영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왕후 심정·정

춘이여·신비한 나라 등 2~4 편의 영화가 매일 상영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화 한 편당 관객 수가 1~2명 뿐이기 때문이다.

지난 8일~9일까지 2일간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2층 민원실에서 열 예정이던 여성 영화제는 취소됐다. 이 행사를 공동 주관한 광주여성

희망포럼과 30주년 행사위원회 간의 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5·18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한 뒤 모든 행사를 취소했다.

시민주도형 추모행사로 치르겠다는 기획 의도와 달리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홍보 부족과 부적절한 장소 선택, 주관·주최 단체인 손발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 이모(62·광주시 북구 운암

동)씨는 "5·18 관련 영화를 보여준다는 얘기를 듣고 행사장을 찾았는데, 행사장 찾기가 어려워 한참을 헤맸다"고 토로했다.

30주년 행사위원회 관계자는 "행사 홍보는 행사를 계획한 단체에서 도맡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관객이 없으면 행사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산소마스크 사망 20대女 가방에 보험금 포기각서

의문 갈수록 증폭

'20대 여성 산소마스크 미스터리 사건'(본보 5월 15일자 3면)과 관련, 숨진 서모(여·26)씨의 손가방에서 동업자 S(41·나주시)씨의 명의로 작성된 보험금 포기각서가 발견됐다.

또 서씨는 지난해 동업자이자 채무자인 S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뒤 취하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서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서씨가 숨진 채 발견된 S씨의 승용차 안에서 '2011년 6월 1일까지 채무 원금 4000만원에 대한 연 이자 65%를 적용, 6600만원을 갚지 못할 땐 S씨 명의의 생명보험금을 대신 지급받겠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보험금 포기각서가 발견됐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S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며칠 뒤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서씨가 고소를 취하하면 동일한 사안으로 재고소가 되지 않은 점을 알면서도 취하한 점으로 미뤄 S씨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17일 오전 숨진 서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차량에서 발견된 비닐봉지 등에 대한 성분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경찰은 또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S씨를 조만간 소환,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서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동구 용산동 체육공원 옆길에 주차된 S씨의 포텐차 승용차 안에서 산소마스크를 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짜고 친 '스타크' 승부조작설 사실로

조폭·프로게이머 등 기소

서울중앙지검 청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스타크래프트 게이머들을 매수해 승부를 조작하도록 하고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박모(25)씨를 구속기소하고 정모(2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과 게이머들을 연결해준 원모(23)씨와 마모(23)씨 등 현직 프로게이머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돈을 받고 일부러 경기에서 져주는 등 승부조작을 실행한 게이머 7명 중

6명은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군림에 소속된 1명은 군검찰로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게이머 양승환원운영자인 박씨는 조직폭력배 김모씨(지명수배)와 함께 작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원씨 등을 통해 경기에 출전하는 게이머들에게 건당 200만~650만원을 주고 경기에서 고의로 지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김씨는 11차례 승부를 조작하고서 9200만원을 배당해 배당금으로 1억4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순천서 40대 공기총 쏘 자살

16일 낮 12시40분께 순천시 동의동한 컨테이너에서 장모(43)씨가 공기총에 맞아 숨져있는 것을 함께 사는 친구 박모(43)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화장실에 가는데, 컨테이너에서 총소리가 들려가보니 친구가 문을 잠근 채 공기총에 맞아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되고 평소 체장암 치료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는 박씨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o@

"PC게임비 안낸다" 10대 참고 감금

○광주북부경찰은 16일 PC게임방 요금 등 2만5800원을 내지못한 청소년을 가계창고에 가둔 종업원 이모(25)씨를 감금 혐의로 불검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밤 9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모 PC게임방에서 김모(17)군이 PC게임방 사용료와 음식값 등 2만5800원을 지불하지 못하자 음료창고에 14시간동안 감금했다는 것.

○이씨는 경찰에서 "친구가 돈을 가지고 오기로 했다"는 김군의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퇴근 전까지 돈을 내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